

제 목	국 문	증상-진단기간이 암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	
	영 문	<i>A study on the effect of symptoms to diagnosis interval on the cancer survival</i>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오희철 <sup>1</sup> , 강희정 <sup>1</sup> , 지선하 <sup>2</sup> , 김희옥 <sup>3</sup>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<sup>1</sup> , 연세대 보건대학원 <sup>2</sup> , 연세대학교 강화보건원 <sup>3</sup>	
	영 문	Heechoul Ohrr <sup>1</sup> , Heehung Kang <sup>1</sup> , Sun Ha Jee <sup>2</sup> , Hee Ok Kim <sup>3</sup> <i>Dept.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YUMC,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, Yonsei University<sup>1</sup>,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<sup>2</sup>, Kangwha Community Health Teaching Center<sup>3</sup></i>	
분 야	역 학	발 표 자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 분
진행 상황	연구완료 (    ), 연구중 ( ✓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   년 월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이 연구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강화암등록사업에 등록된 암환자 756건을 대상으로 증상-진단기간(Symptoms to Diagnosis Intervals)이 암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강화암등록사업에 등록된 암환자 756건 중 위암 221건, 폐암 106건, 간암 74건, 자궁암 59건 등 총 46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. 처음 증상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임상적, 실험실적 진단을 받는 최초 시점까지의 기간인 증상-진단기간의 장단에 따른 병기의 분포, 병기별 증상-진단기간에 따른 차이 등을 보았다. 연령, 성, 직업, 병기 등의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증상-진단기간이 암생존기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Cox의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.</p>			

### 3. 연구결과

- 1) 증상-진단기간의 장단에 따른 병기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- 2) 연령, 성, 직업, 병기 등의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증상-진단기간이 암생존기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암의 종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도 생존기간에 대해 증상-진단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.

### 4. 고찰

오랫동안 많은 의료인들은 증상-진단기간이 짧을수록 진단 당시 병기의 진전이 적을 것이며 따라서 곧 이은 치료는 생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왔다. 그러나 증상-진단기간이 길수록 병기가 진전된다는 증거를 볼 수 없었으며 또한 원위 병기로 갈수록 증상-진단기간이 길어지는 경향도 없었고 병기별 증상-진단기간의 차이도 없었다. 생존기간에 대해서도 증상-진단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증상-진단기간은 개인의 사회·경제학적 상태, 행동방식,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체계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복잡한 변수이므로 이 연구에서 포함되지 못한 사회·경제학적 변수 및 의료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고려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